

**도입
기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코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완악한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1.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1.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2. Summer and winter, and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ir courses above, Join with all nature in manifold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3. Pardon for sin and a peace that endureth, Thine own dear presence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ten thousand beside!
- Choru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본문 에스겔 36:26-28

-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Ezekiel 36:26-28

26 And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 And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from your flesh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27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s and be careful to obey my rules. 28 You shall dwell in the land that I gave to your fathers, and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설교

에스겔 3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행하려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라고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은 다소 엄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나 문맥을 계속 읽어 보면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의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재창조입니다. 순종은 외적인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에스겔이 예언한 정결함이 실체가 되었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약속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은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내적인 새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기에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우리의 구원을 향한 사랑은 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반응은 겸손과 기쁨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높이지 않고 낮춥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음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공로를 넘어서는 더 깊은 사랑, 곧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에 뿌리내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전면

When God declares in Ezekiel 36:22, "It is not for your sake, O house of Israel, that I am about to act," the statement sounds severe. Does He mean He will act without blessing them? The context makes the answer clear. God is not withholding good; He is withholding credit. Israel's exile was the result of their rebellion. Their restoration would not be a reward for righteousness but a display of God's own holiness and faithfulness. What follows is one of the most lavish descriptions of grace in Scripture. God promises cleansing, a new heart, and His own Spirit within them. He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and give a heart of flesh. This is not behavioral reform but spiritual re-creation. Obedience will not come from external pressure but from internal transformation. God Himself will cause His people to walk in His ways. This promise finds its fulfillment in Jesus Chris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cleansing Ezekiel foretold becomes reality. Throug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believers receive the new heart and new Spirit promised long ago. The new covenant is not about external law but inward renewal. We are not simply improved; we are made alive. And all of this rests on a staggering truth: God acts for the sake of His holy name. His grace does not arise from our worth but from His steadfast character. God's faithfulness is not weakened by our unfaithfulness. He remains faithful because He cannot deny Himself. His pursuit of His glory and His pursuit of our good happen in the same saving act. When we grasp this, our response is both humility and joy. Grace does not flatter us; it humbles us. It reminds us that we were spiritually dead and that life came entirely from God's mercy. Yet it also assures us that our salvation rests not on our fluctuating obedience but on His unchanging faithfulness. "It is not for your sake" does not mean we are unloved. It means we are saved by a love deeper than merit — a love rooted in the glory and faithfulness of God Himself.

나눔제목

1.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와 확신이 될까요?
Why is it comforting and reassuring for us that God says, "It is not for your sake, but for the sake of My holy name"?
2.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돌 같은 마음'(고집, 미움, 불순종 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나요?
What are the "stony hearts" (stubbornness, hatred, disobedience, etc.) still remaining within me, and how do I wish for them to be transformed into "hearts of flesh"?
3. 새 언약 아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How can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us under the New Covenant change our lives this coming week?

마침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과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ithful God,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this worship that our salvation and restoration are entirely by Your grace. Since You have put a new spirit and a new heart within us, help us to live as Your people in our daily lives this week. We cannot do it by our own strength, but may we love, serve, and overcom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dwelling within u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has purified us.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제목

1. 우리 가족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May our family not boast in our own righteousness, but live humbly, relying solely on God's faithfulness.
2. 성령께서 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May the Holy Spirit renew our hearts daily, giving us tender hearts that joyfully obey the Lord's word.
3. 남가주 동신교회와 우리 가정의 복음의 정결함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May Dong Shin Church and our family be purified by the Gospel and become channels that transform the world.